

군산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10일부터 7일간 원도심 일대서

홀로그램·기획전시·버스투어

12일 학술세미나·기념식 진행

군산시가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10일부터 7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등록문화재 374호)과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등록문화재 600호) 등 원도심 일대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기획전시와 홀로그램 체험, 버스투어, 학술세미나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기획전시와 홀로그램 체험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문화해설사의 기획전시에 대한 해설과 함께 홀로그램콘텐츠 체험관 2층에서 감옥대탈출, 쌀 수레꾼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시·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조정에 따라 개인 위생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되며, 1회 입장객을 30명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군산시가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7일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군산근대건축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군산시 제공>

또 행사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가 운영된다. 인원은 1회

20명으로 제한되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

출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코스는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시작으로 옛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해방굴, 신흥동 일본식가옥(내부관람 포함), 이영춘 가옥(내부관람), 옛 발산리 일본인 농장창고 등을 직접 관람하고 전문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학술세미나와 기념식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학술세미나는 이광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근대의 기억과 등록문화재'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 진행된다. 윤인석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열린 토론을 진행될 예정이며, 세미나는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기념식도 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근대역사문화의 대표도시인 군산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에 더욱 힘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 보존도시로 거듭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 '단풍 고춧가루'

TV홈쇼핑서 소비자 만난다



고추재배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춰 전국 최대 건조 추 생산·유통 지역으로 유명한 정읍의 '단풍 고춧가루' (사진)가 TV홈쇼핑을 통해 소비자와 만난다.

정읍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읍 고춧가루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 오후 4시55분부터 40분간 NS홈쇼핑에서 '단풍 고춧가루'의 판매방송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보일 '단풍 고춧가루'는 500g 4봉지 1세트로 구성돼 8만9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정읍은 지리적으로 명품 고추재배에 최적화된 기온과 일교차를 갖고 있어 예부터 정읍고추만의 단내와 매운맛은 '일품'이란 평가를 들어왔다.

'단풍 고춧가루'는 신대안농협 청결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15개의 철저한 공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생산된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제품이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특허기술을 적용, 특수기공에 의한 살균처리로 장기간 보존해도 변질의 우려가 없다.

정읍시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한 매출증대는 곧 지역 농가의 이익이므로 향후 판로확대 등 지속 성장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모양성 4개 마을

내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고창군이 고창읍 모양성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한다.

고창군은 올해 8억원을 투입해 고창읍 모양성(사적 제145호) 주변 4개마을(천북, 동산, 모양, 동촌)에 도시가스 관로를 설치해 약 207여 세대에 내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열린 사업설명회에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며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그동안 군은 2011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해 799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 하지만 모양성 주변 마을은 도심지역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망이 없어 값비싼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기반시설을 확충해 군민들이 청정연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만경강 일원 수변도시 조성사업 청신호

기본구상 용역 결과 발표

경제적 타당성·수요 충분

익산시가 남부권역 만경강 일원에 추진 중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명천 익산시 건설국장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결과와 기대효과, 앞으로의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전문용역 기관에서 분석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B/C(비용편익분석) 1 이상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익산시를 포함한 도내 인접 도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이번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67.4%로 타지역에서도 수변도시 조성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지구 내 입주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대상자는 54.7%로 이를 인구수로 환산한



만경강 수변도시 조감도.

결과 무려 9만3000여명의 수요가 확인됐다.

특히 전주와 군산, 김제 등 주변 지역에서 사업 지구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38%로 나타났다. 이는 2만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민간사업시행사 공모와 민관

합동 SPC 설립 등 모든 방식을 열어두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용역이 종료되면 곧장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함과 동시에 추가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사업참여 의향을 내비치는 등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의 최종 대상지는 행정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이후 개발행위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장치를 마련한 뒤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만경강 수변 자원을 활용해 청년층과 은퇴자를 위한 공동주택과 은퇴자 타운을 조성하고 의료와 문화시설, 초등학교, 공원 등의 인프라를 포함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명천 익산시 건설국장은 "사업 타당성과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라며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지역 호우 피해 농업기반시설 대부분 복구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망가져 큰 피해가 발생했던 남원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대부분 복구됐다.

남원시는 지난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했던 관내 농로와 용배수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의 재해복구사업이 98%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원지역에서는 지난해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농업생산기반시설 797개소에서 6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폭우가 내린 직

후부터 783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및 관련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는 14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추가 사업대상 109개소를 선정, 관련 예산을 확보한 시는 시급성을 따져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Kim e Bong Solar Energy